

# 전주시의회 의원 5분발언

### 송영진 의원, 10년 넘은 전북혁신도시 축산분뇨 악취 해결 촉구 김동현 의원, 모악산 관광지 조성 사업 따른 주민 피해 대책 마련

15일 전주시의회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송영진(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은 10년 넘은 전북혁신도시 축산분뇨 악취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전북혁신도시 반경 4km 지점에 있는 축산시설에서는 소, 돼지 등 가축들의 분뇨가 다량 배출돼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4만여 명에게 보이지 않는 악취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년 전부터 문제점으로



송영진 의원 김동현 의원

제기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어떠한 개선도 되지 않고 있는 만큼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현(삼천1, 2, 3, 효자동) 의원은 모악산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주차 및 휴식 침해 발생 등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우범기 시장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인 모악산 관광지 조성사업의 추진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을 위한 내용이 없다"며 "주차 문제 발생과 휴식권 침해 등 더 큰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설공단, 찾아가는 현장 회의

### 매달 1차례 시설 순회 방식으로 회의 진행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부서 간 소통강화와 협업 촉진을 위해 매달 1차례 찾아가는 현장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15일 밝혔다.

확실적인 업무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시설별로 순회하며 현장의 현안을 공유하고, 부서 간 칸막이 없이 공단 구성원들이 다 함께 개선 방안을 찾겠다



는 취지이다. 공단은 이날 오후 임원과 각 부서 중간 관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송화원에서 그 첫 회의를 진행했다. 송화원은 최근 현대와 사업을 통해 새로워진 시설이다. 화장로를 최신식으로 교체하고, 기수도 6기에서 8기로 확대했다. 유력동산도 신규로 운영한다. 유력동산은 시설에 불안하지 않는 유골을 화장 후 처리하는 장소다. 유족 대기실도 신규 건물에 새롭게 조성됐다. 식당과 매점 등 유족 편의 시설도 곧 문을 연다.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은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의견을 내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서명대 시설본부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 중이며, "찾아가는 현장 회의"의 도그 일환"이라며 "작은 변화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이재민 수해복구작업 전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세대를 대상으로 익산시 여산면 일대에서 이선홍 회장, 익산 적십자 봉사원, 직원 등 50여명이 복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해 현장에 투입된 봉사원과 직원은 침수 및 파손 피해를 입은 상가와 주택을 방문해 가재도구 정리, 토사 제거, 쓰레기 분리 등 일상생활 복구를 위한 복구활동에 힘썼다. 또한, 적십자 전북특자치도지사는 앞

로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지역의 간식 및 부식 등 물품지원요청에 대응하며 침수 주택 및 농경지 등 복구 지원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선홍 회장은 "피해 지역에 빠른 복구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며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수해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여름달밤이야기' 로 전주한옥마을 야경·문화 만끽

### 19일-9월 1일 매일 오후 7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야간해설투어 무료 진행

관광거점도시 전주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전주한옥마을의 야경과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야간해설투어가 운영된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9월 1일까지 45일 동안 매일 오후 7시,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한옥마을 야간해설투어인 '여름달밤이야기'를 무료로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전주 이야기 △왜 전통성당이 한옥마을에 있게 되었을까 △옛 시절 고등학교생들의 하숙집으로 통했던 한옥마을의 옛이야기 등 곳곳의 명소에 맞춰 들려주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이야기를 달밤 정취와 함께 들어볼 수 있다. 특히 올리는 기존 노을 지는 전주천변 남천교(정명루) 코스뿐 아니라 전

주한옥마을의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종합관광안내소 누마루 코스가 추가된 2가지 코스가 격일로 운영된다. 소요 시간은 약 50분 정도로, 참여 방법은 별도의 예약 없이 경기전 매표소 앞 출발 배너 앞에서 대기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폭염으로 인해 낮 시간대보다 저녁시간 대의 관광객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야간 프로그램에 대한 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했다"면서 "숙박관광객들에게도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 송천동 분동 추진 위한 주민설명회

### 추진 배경·방향·절차·질의응답 등 진행... 여론조사·주민 의견 수렴 행정구역 조정계획 수립키로

전주시가 시민들의 늘어가는 행정·복지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중인 송천동 분동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시는 지난 12일과 15일 이틀간 예코더샵1 작은도서관과 송천2동 주민센터에서 2차례에 걸쳐 분동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분동 추진 배경 △분동 추진 방향 △분동 경계안 △신설 분동 명칭안 △추진 절차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가 이처럼 송천동 분동을 추진하는 것은 송천1동 인구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6만4714명으로 늘어난 데다, 이 중 신도시개발지구인 예코시티의 경우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한 데시앙15블럭까지 포함하면 인구가 3만 2882명으로 각종 행정·복지 민원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는 향후 예정된 예코시티 16~17블럭 등 4500여 명과 천마지구 6700여 명 등 인구 유입 요인을 고려하면 효율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 분동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에 이어 이날



전주시는 지난 12일과 15일 이틀간 예코더샵1 작은도서관과 송천2동 주민센터에서 2차례에 걸쳐 분동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16일부터 22일까지 ARS, 모바일웹 문자 등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행정구역 조정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에 분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분동 예정지역인 예코시티의 행정구역이 송천1동과 송천2동에 걸쳐있는 만큼 분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0일에는 송천

2동 자생단체장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전주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분동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효율적인 분동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완산소방서, 신규 소방공무원 2명 임용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는 15일 오후 서장실에서 신규 임용자 소방사 2명(최영호·정철원)에 대한 임용 환영식을 가졌다. 임용장을 받은 신규 소방공무원 2명은 소방학교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 수료 및 화재, 구조, 구급 등 분야별 훈련과 평가를 무사히 마쳤다. 박경수 서장은 "전주완산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으로서 첫걸음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바란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